

2020. 10. 12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8/202010080211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요약) 삼성화재·동양생명, 한화 태양광발전에 800억 댄다

- 두 보험사는 한화솔라파워와 한국서부발전이 소규모 태양고아발전사업을 설립한 '해모둠태양광'에 대주단 참여
- 최근 들어 보험사가 태양광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 비교적 안정적 수익률 때문

한화그룹이 추진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에 **삼성화재**와 **동양생명**이 대주단으로 참여했다. 저금리 시대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수익원 발굴에 나선 보험사들이 태양광발전의 금융주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동양생명은 한화솔라파워와 한국서부발전이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설립한 '해모둠태양광'에 대주단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해모둠태양광 대주단에는 KDB 산업은행이 500억원, 삼성화재와 동양생명이 각각 400억원을 넣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해모둠태양광은 한화솔라파워가 51%, 서부발전이 49%의 지분을 가지고 작년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해모둠태양광은 전국의 3M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인수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한화솔라파워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모둠태양광에 통합해 허브 역할을 맡는 것으로 알려져 에너지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한화솔라파워와 서부발전은 당초 해모둠태양광의 총사업비를 1000억원 정도로 예상했다. 두 회사가 자기자본 200억원을 투입하고 산업은행이 나머지 자금을 대출해주는 구조로 사업을 계획했다. 하지만 SPC를 설립하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1500억원으로 늘어났다. 사업 규모가 커지자 대주단에 삼성화재와 동양생명이 새로 참여하게 됐다. 대주단은 해모둠태양광과 지난달 대출약정서를 확정했고, 이번달 중에 금융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할 예정이다.

태양광발전 금융주선은 보통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맡는 경우가 많다. 신재생에너지 투자 펀드를 운용하면서 금융주선에도 나서는 식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보험사가 태양광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마땅한 투자 자산을 찾기가 어려운데 정부가 보증하는 태양광발전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어서 보험사들도 관심이 많다"고 설명했다. 해모둠태양광이 대주단에 참여한 보험사에 약속한 수익률은 4.1%에 달한다.

정부가 보험사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규제를 풀어주고 있다.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르면 보험사가 투자할 때 낮은 위험계수가 적용되면 SOC 금융은 수익 및 안정성을 정부가 보장한다는 확인이 있어야 했다.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는 그동안 이런 정부 확인이 없어서 보험사는 건전성 규제에 대한 부담을 안은 채 투자에 나서야 했다. 하지만 작년 9월 정부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이제는 큰 부담 없이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됐다.

2020. 10. 12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0/1039429/>

(요약) 7000억 추가 환매중단 위험...말라죽는 펀드시장

- 최근 6조원을 넘는 환매 중단 펀드 금액이 조만간 7조원에 육박

- 주요 환매 중단 자산운용사의 상품 문제점과 코로나 19위기 등으로 환매가 중단

금융감독원이 7000 억원이 넘는 국내 공모사모 펀드의 추가 환매 중단 위험을 경고했다. **최근 6 조원을 넘는 환매 중단 펀드 금액이 조만간 7 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19 위기 속에 자본시장 투자자들이 간접투자 상품인 펀드를 탈퇴하고 개별 주식 투자로 대거 선회하는 가운데 라임자산운용 사기 사태 여파로 은행증권 등 판매사들이 금융 사고와 당국의 징계 우려에 펀드 판매를 꺼리고 있어 펀드 시장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금감원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8 월 말 기준 주요 환매 연기 펀드 현황' 내부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된 펀드 상품 중 6 조 589 억원의 환매가 중단됐고 앞으로 7263 억원의 추가 환매 중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환매 중단 자산운용사의 상품 문제점과 코로나 19 위기 등으로 환매가 중단된 공사모펀드 상품에서 추가로 7000 억원대 환매 중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펀드 시장이 급반등하는 등 큰 변화가 없다면 각 상품의 다가올 만기에 순차적으로 환매 중단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8 월 말 기준으로 환매 중단 펀드 금액은 이미 6 조원을 넘어섰다. 운용사별로는 라임자산운용 1 조 4651 억원, 디스커버리 3124 억원, 알펜루트 3686 억원, 옵티머스 3042 억원 등 2 조 4503 억원의 펀드 환매가 중지됐다. 개별 펀드별로는 젠투파트너스의 채권 펀드가 1 조 805 억원, P2P 투자로 주목받은 팝펀딩 1050 억원, 독일 헤리티지 부동산 펀드 4392 억원,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502 억원, 글로벌 채권 및 대체투자 H2O 펀드 5014 억원 등에 2 조 1763 억원의 투자금이 묶여 있다.

금감원은 특히 이들 위험 펀드 중 옵티머스 2109억원, 팝펀딩 325억원, 헤리티지 817억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1391억원을 비롯해 호주부동산펀드 2420억원 등 7263억원의 추가 환매중단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주요 환매 연기 펀드 (단위=원)

구분	중단	추가 중단 위험액
운용사	라임	1조4,651억 0
	디스커버리	3,124억 0
	알펜루트	3,686억 0
	옵티머스	3,042억 2,109억
투자 펀드	젠투	1조805억 0
	팝펀딩	1,050억 325억
	헤리티지	4,392억 817억
	헬스케어	502억 1,391억
	H2O	5,014억 0
	호주부동산	0 2,420억
기타 펀드	1조4,323억	201
총합	6조589억	7,263억

※ 올해 8월 말 기준. 자료=금융감독원·김병욱 의원실

김 의원은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사모펀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힘쓰는 동시에 전통적인 모험자본으로서 사모펀드 자체가 위협받지 않도록 균형감이 중요하다"며 "국회와 금융당국, 금융권이 함께 펀드산업 신뢰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 10. 13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출 처) 머니투데이

[기사링크](#)

(요 약) 수소차 2년새 10배 늘었는데...내압용기 전용 검사소 '0'

- 수소전기차 2018년 대비 2020년 10배 늘었지만 파열 시 대형 인명피해 야기하는 내압용기 전용검사장 없어
-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소차량에 대비해 검사소 확충 필요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10.12/뉴스1

수소차량이 올해 8911대까지 급증했지만 파열시 대형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수소차 내압용기 전용검사장은 한 군데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내 수소차가 급증하고 있는데 수소차 내압용기 전용검사장은 한군데도 없고 지적했다.

송 의원실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소차량 등록대수는 2018년 말 893대에서 올해 2020년 8월 기준 8911대로 2018년 대비 2020년 10배 늘었다. 수소전기차 내압용기는 CNG차량에 비해 35배 높은 초고압 용기가 사용돼 만약 파열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10년 8월 서울 행당동 CNG 버스 내압용기 파열사고로 19명 중경상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소차량은 이보다 더 높은 압력의 초고압 용기가 사용되고, 무색무취무미 가스로 누출 시 탐지가 어려울 뿐 아니라 소량의 누출만으로도 화재 발생 가능성이 커 정기적인 내압용기 검사가 사고 예방에 필수적이다.**

송 의원은 "내압용기전용검사장 1곳도 없고 그나마도 기존 CNG차량 검사소를 개조해 수소차량 검사소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마저도 전국에 10개소에 불과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수소차량 보급속도를 볼 때 검사수용가능 대수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내년에 수소차량이 많은 울산과 경남에 수소차량 전용검사소를 설치하겠다"고 답했다.

2020. 10. 13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출 처) 한국경제

[기사링크](#)

(요 약) 모건스탠리, "유가 배럴당 50달러 넘기기 힘들다..석유시대 종말"

- 셰일오일의 등장과 친환경 정책으로 비용과 석유수요 감소해 석유 가격은 앞으로 배럴 당 50달러 넘기기 힘들 것
- ESG 투자가 향후 10년동안 미국과 유럽의 재정 부양책에서 가장 큰 주제가 될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원유 시장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경기 둔화와 이동제한이 맞물리면서 수요가 줄어들었고 미국, 유럽 등에서 친환경 정책이 힘을 받고 있어 향후 수요 회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피크오일(석유 생산의 정점)에 대한 논쟁이 다시금 대두됐습니다. 이에 대해 **모건스탠리의 앤드류 쉬츠 수석전략가는 "지금은 석유 공급의 정점이라기보다는 수요가 정점에 다다른 상태"라며 "석유 가격은 배럴당 50달러를 넘기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우선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셰일오일이 등장한 것인데요, 셰일오일은 1800년대에 발견되었지만 한동안 외면받았습니다. 원유보다 더 깊은 곳에 매장되어있어 시추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채굴 기술이 발전하면서 2010년대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장량도 풍부합니다. 셰일오일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공급되면서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2008년 7월 초 배럴당 145달러를 찍었던 유가는 2016년 30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앤드류 쉬츠는 환경적 측면이 원유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봤습니다. 신기술로 에너지 효율이 높아졌고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 친환경 정책이 주요 정책 주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는 청정에너지 및 인프라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고 유럽에서는 7500억 유로 규모의 복구 기금 중 최소 30%가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에 사용될 전망입니다.

쉬츠 전략가는 "향후 20년 이상 석유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보면 원유 수요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온다"며 "분석가들은 원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환경 변화는 원유의 영향을 받는 주식과 통화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앤드류 쉬츠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가 향후 10년동안 미국과 유럽의 재정 부양책에서 가장 큰 주제가 될 것이라고도 예상했습니다.

2020. 10. 14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01318234511382>

(요약) 네이버, CJ대한통운 지분인수 추진...2대주주 된다

- 네이버의 쇼핑사업이 급속성장하면서 물류부문 파트너를 업계1위인 CJ대한통운으로 되고 있어
- 주식스왑을 통한 거래를 한다면 안정적인 경영권에 도움, 또한 동반 주식이 가치 상승의 큰 기대

CJ대한통운 (177,500 원 ▼9000 -4.8%)이 네이버의 지분 투자를 받는다. 최종 검토가 남아있긴 하지만 네이버가 CJ대한통운 지분 10~20%를 확보해 2대 주주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투자규모는 4000억~8000억원으로 관측된다.

네이버는 쇼핑사업이 급속도로 성장하자 물류부문에서 파트너를 넘어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기업을 물색해왔다.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 역시 네이버를 주주로 영입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데, CJ그룹 입장에서도 장점이 무척 많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은 네이버에 매각할 CJ대한통운 주식의 규모와 시기, 가격, 방식을 이달 안에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CJ (81,400 원 ▼100 -0.1%)대한통운 지분율(6월말 기준)은 △CJ제일제당 (402,000 원 ▲4000 1.0%)(40.16%) △자사주 20.42% △국민연금공단 8.18% 등이다. 이 가운데 자사주(현재가치 8688억원)를 네이버가 사들이는 형태가 유력한데 규모는 최소 절반에서 많게는 전량까지 거론된다.

거래대금은 현금 대신 네이버 주식으로 치를 가능성이 높다. 네이버도 CJ대한통운처럼 자사주(11.51%, 5조 5750억원)를 보유하고 있어 여력이 넘친다. 결국 주식 스왑(맞교환)이 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할 경우 네이버만 CJ대한통운 주식을 보유하는 일방적인 관계가 형성된다"며 "반면 주식스왑은 양측이 쌍방의 주주가 되기 때문에 보다 동등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스왑이 이뤄지면 거래 대상이 된 자사주에 의결권이 부여되는 만큼 안정적인 경영권에도 도움이 된다"며 "CJ대한통운과 네이버 모두 장기적인 주가상승으로 주가가치가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큰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번 딜과 관련해 업계에선 다소 조심스러운 시각을 보이고 있으며 당사자인 CJ그룹과 네이버도 공식 입장을 낸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이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럼에도 증권가에서는 양측의 협상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협의가 오랫동안 진행된 결과, 양사가 서로 지분만 없을 뿐 사업적인 측면에선 이미 특수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이다.

온라인 중심의 네이버쇼핑의 올해 예상 거래액은 전년대비 50% 넘게 증가한 30조 3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언택트 소비가 성장세에 불을 붙였다.

네이버쇼핑은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수십만 곳의 가맹점을 통해 이뤄지는데 이 물량이 폭증하자 네이버는 지난 4월 CJ대한통운과 연합전선을 꾸려 풀필먼트(물류 일괄대행) 서비스를 출범하기도 했다.

풀필먼트란 물류업체가 판매 업체의 위탁을 받아 배송과 보관, 재고관리, 교환환불 등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네이버쇼핑 입점 업체들에게 딱인데 물류처리속도까지 남다르다.

네이버를 위해 CJ대한통운은 2018년 완공한 축구장 16개 면적(11만 5700㎡, 3만 5000평)의 곤지암 메가허브 풀필먼트센터를 제공하고 있다. 전체 면적 중 6만 6115㎡은 CJ오쇼핑 등이 쓰고 나머지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중이다.

재계 관계자는 "물류 1위인 CJ대한통운과 온라인 쇼핑점유율 1위인 네이버쇼핑의 제휴는 이미 이뤄진 것과 같은 상태"라며 "세부조율과 최종 의사 결정만 마무리하면 나머지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00713423412549>

(요약) 비행선박부터 액화수소 충전트럭까지...스타트업도 '녹색'바람

- 5대 그린뉴딜 과제로는 그린스마트스쿨, 스마트그린산단, 그린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차를 제시
- 미래 이동수단부터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까지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타트업들이 두드러져

전세계적으로 녹색산업이 움트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을 이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으면서다. 미국과 유럽에 이어 우리 정부도 '그린 뉴딜' 성장에 집중, 5년간 73조원을 투입한다.

5대 그린뉴딜 과제로는 그린스마트스쿨, 스마트그린산단, 그린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차를 제시했다. 벤처·스타트업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미래 이동수단부터 태양광·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까지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타트업들은 이미 녹색산업의 최전선에 뛰어들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론비행선박산업**은 비행선박(위그선) 'M80'의 세계 첫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13여년간 500억원을 투자해 상용 위그선을 개발·양산 체계를 구축, 올해 22척 생산을 진행 중이다.

'하늘을 나는 배' 위그선은 선박과 항공기의 장점을 결합한 미래 이동수단으로 꼽힌다. 날개가 해수면과 가까울 때 양력이 커지는 '수면효과'로 생긴 공기층(에어쿠션)을 이용한다. 시장 규모는 3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바다 위를 최고 150m 높이로 비행한다. 국제해사기구(IMO) 기준으로 바다에서 고도 150m 이하로 운항하는 기체는 선박으로 분류된다. 최대 속도는 250km로 고속선보다 4배 정도 빠르다.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1시간이면 도착한다. 한번 뜨면 최대 600km를 이동한다.

기존 선박, 헬리콥터 대비 탄소 배출량이 현저히 적고, 연료효율성이 높다. 동급 선박 대비 연료 절감 효과는 70%를 웃돈다. 탄소 배출량은 10분의 1 수준이다. 조현욱 아론 대표는 "바다의 보양을 목표로 현재 8인승 모델에서

그린뉴딜 분야별 주목받는 벤처·스타트업

회사명	아론비행선박산업	리하베스트	솔라커넥트	나인와트	하이리움산업
대표	조현욱	민명준	이영호	김영록	김서영
설립일	2008년 2월	2019년 8월	2016년 9월	2019년 2월	2014년 8월
분야	미래 모빌리티	업사이클 식품	그린에너지	그린에너지/ 그린리모델링	그린에너지/ 모빌리티
핵심서비스	차세대 해상 운송수단 위그선 (비행선박)	식품 부산물 재가공 간편식	태양광 에너지 통합 플랫폼	빅데이터 기반 에너지 효율화	액화수소 기반 에너지 솔루션

그래픽: 유정수 디자인가자

20~30인승 확대한 차세대 모델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리하베스트는 업사이클(재활용) 식품 분야 스타트업이다. 업사이클 산업은 자칫 버려질 수 있는 폐기물 등을 활용해 환경과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녹색 혁신 성장의 대표적인 산업군이다.

리하베스트는 식품 제조 후 버려지던 부산물로 건강 간편식을 만든다. 맥주나 식혜를 만들고 남은 곡물 부산물이 주 재료다. 맥주나 식혜 생산 시 발생하는 부산물은 월평균 3만톤에 달한다. 맥주식혜 생산업체와 계약을 맺고 부산물을 수거, 밀가루 같은 원료인 '리너지가루'로 제조한다.

리너지가루는 일반 밀가루 대비 칼로리는 30% 낮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각각 2배, 21배 많다. 이 가루를 재가공해 생산한 게 그래놀라바 형태의 '리너지바'다. 리너지바가 1억원어치 팔리면 직접적으로 맥주 부산물 4톤 정도를 버리지 않고 재활용 하는 셈이다.

리하베스트는 내년까지 간편식 리너지바 생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후 제품군을 면가루 등 원료형 제품, 가정용 간편식(HMR) 등으로 확대해 B2B(기업간 거래) 거래에도 나설 예정이다.

대기업들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에 초점을 맞춘 반면 스타트업들은 생산된 에너지를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적화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

솔라커넥트는 태양광 발전소 통합 플랫폼을 운영한다. 2016년 이후 태양광 누적 사업개발용량은 380MW(메가와트)다. 태양광 발전 설비를 제조하는 '업스트림'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태양광발전 가치사슬(밸류체인)의 전 단계를 통합했다.

실제 개인이나 기업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모든 과정을 서비스 형태로 구현했다. 발전소 개발과 금융조달, 건설, 관리운영부터 신사업 부문으로 주목받는 에너지저장장치시스템(ESS)·전력중개, 가상발전소(VPP)·전력거래 영역을 포함한다.

나인와트는 학교·공장 등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완성하는 에너지 저감 시스템을 개발했다.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해 물리적인 설비교체 없이 현재 사용환경과 패턴을 분석, 에너지효율을 높여준다. 날씨 변화, 건물 크기·위치·용도 등을 시설별로 분석해 에너지 사용량의 피크 최적치를 예상해 에너지 사용을 원격제어하는 방식이다.

학교·공장 등에 최신 에너지 설비가 있어도 제대로 관리·운영할 인력이 없으면 사실상 방치되고 만다. 2013년 하반기 전국 학교에 설치한 최대전력 관리장치(피크 제어기)가 대표적이다. 피크 제어기는 전력사용량이 미리 설정해 둔 최대치를 넘어서면 우선순위에 따라 전기를 차단한다. 그러나 전문 관리인력이 없어 오히려 에너지 비효율을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전력사용량과 무관하게 초기 설정값을 유지하거나 차단을 막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값을 높게 설정하는 일들이 많아서다.

김영록 나인와트 대표는 "신규 인프라 설치 없이 기존 에너지 설비를 효율적으로만 관리 해도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며 "용도에 따른 사용패턴을 찾아내 인공지능(AI)으로 원격 제어하면 관리 비용까지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리움산업은 수소를 영하 253도 이하로 냉각해 액체 상태로 만드는 극저온 처리 특허기술을 보유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수소액화기 등 극저온장치를 개발하고 상용화했다. 액화수소는 기존 고압가스 방식보다 안전하면서 효율성과 경제성이 뛰어나 수소차 보급을 앞당길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는다.

5톤 전용 트럭에 액화수소펌프, 기화기, 디스펜서 등 충전설비를 달아 도심형 액화수소 스테이션(충전소)을 만들었다. 최대 운반저장량은 7500리터다. 수소연료전지차 1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크기다. 항공기(드론)용 액화수소 연료팩도 연구개발하고 있다. 김서영 하이리움산업 대표는 "그린뉴딜 산업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액화수소 충전소 보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 10. 15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링크](#)

(요약) 너무 비쌌나? 빅히트 상장 직후 '따상' 찍고 상한가 풀려

- 상장 직후 35만1,000원까지 치솟으며 따상을 기록했지만 7분 뒤 상한가 풀리며 투자자들 차익실현으로 주가 하락
- 앞서 상장한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가 상한가로 직행해 거래를 마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15일 상장과 함께 최고가로 거래를 시작했다. 다만 **장 초반 '따상(공모가 2배에서 시초가가 형성된 후 상한가 직행)을 기록한 뒤 이내 상한가가 풀렸다.**

빅히트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시초가 대비 약 20% 오른 32만5,0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이다. 상장 직후 시초가가 공모가(13만5,000원) 2배인 27만원에 형성된

이후 장 초반 가격제한폭인 35만1,000원까지 치솟으며 따상을 기록했다.

하지만 약 7분 뒤 상한가가 풀리며 주가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일찌감치 공모주를 확보한 투자자들이 차익실현에 나선 영향이다. 앞서 상장한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가 상한가로 직행해 거래를 마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상장 기념식에 참석한 방시혁 빅히트 의장은 "앞으로도 새로운 밸류 체인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음악시장을 확장해나가겠다"며 "상장 회사로서 깊은 책임 의식을 갖고 사회적 기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글로벌 엔터테인먼트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0. 10. 15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출처) 한국경제

[기사링크](#)

(요약) 佛 ‘통금·포르투갈 ‘국가재난’ 선포...美하루 5만명 확진...코로나 초비상

-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다시 급증함에 따라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일제히 강경 통제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 미국,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모두 확산세 심각...미국 두달만에 하루 신규 확진자 5만명대 재진입

최근 7일간 미국·유럽 주요국 코로나 19 일간 신규 확진자 수							(단위 : 명)
일자	미국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10월 8일	57304	18129	17540	5585	4458	4401	
10월 9일	60996	20339	13863	5986	5372	4964	
10월 10일	54410	26896	15166	9285	5724	2975	
10월 11일	42106	16101	12872	9285	5456	2838	
10월 12일	46016	8505	13970	9286	4616	4803	
10월 13일	51535	12993	17234	7118	5901	4585	
10월 14일	55975	22591	19724	11970	7332	6063	
14일 오후 11시(GMT) 기준.							월드오미터 자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스 감염증(코로나19) 일간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일제히 강경 통제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15일(GMT·그리니치 표준

시)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프랑스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2만2591명이 늘어 총 77만9063명으로 집계됐다. 프랑스에서 2만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9일(2만339명), 10일(2만6896명)에 이어 세 번째다.

같은 날 영국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도 1만9724명으로 전산 오류 누락치가 반영된 지난 4일(2만2961명)을 제 외하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규모다.

이탈리아에서도 14일 일일 확진자 수가 7332명으로 종전 최고치(3월 21일, 6557명)를 훌쩍 뛰어넘었고, 독일에서도 같은 날 일일 확진자 수가 6063명으로 급증했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각국은 강력한 봉쇄 조치에 나서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2TF1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달 17일부터 최소 4주 동안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파리를 포함한 일드프랑스, 마르세유, 리옹 등 '최고 경계' 등급이 매겨진 9개 지역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통행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프랑스 전체 인구의 30% 가까이가 영향을 받게 된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앞서 이날 프랑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17일부터 국가보건 비상사태를 다시 선포하기로 의결했다.

북아일랜드 자치정부도 영국에서 가장 먼저 일종의 '미니 봉쇄조치'인 '서킷 브레이크'를 도입했다. 16일부터 4주간 펌과 식당의 포장 외 영업이 제한되며, 모든 실내 스포츠와 15명 이상 이벤트도 불허된다. 학교 역시 19일부터 30일까지 문을 닫는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잉글랜드 전역에서 지역별 감염률에 따라 제한 조치를 달리하는 코로나19 대응 3단계 시스템을 발표·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제1야당인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대표가 '서킷 브레이크' 실시를 요구하며 여야 간의 갈등도 벌어지는 양상이다.

독일에서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독일 16개 주(州) 총리들이 14일 회의를 통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통제 강화에 합의했다. 이 밖에 포르투갈에선 국가재난 사태를 선포하며 15일부터 2주간 적용할 코로나19 제한 조치를 발표했고, 체코도 6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학교와 술집의 운영을 다음 달 3일까지 중단했다.

미국의 재확산 추세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CNN 방송은 미 존스홉킨스대 통계를 분석한 결과, 13일 기준 미국의 최근 1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만1000여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 수치가 5만명을 넘긴 것은 두 달여 만에 처음이다. 한 달 전 이 수치가 3만4300여명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48%나 증가한 것이다. 규제의 강도도 높아지는 추세다. 미셸 루한 그리섬 뉴멕시코 주지사는 술집과 주류 판매 식당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금지하고, 5인 이상의 모임을 열지 못하게 했다. 오클라호마시티도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증가하자 마스크 의무 착용 관련 조치를 12월7일까지 연장했다.

2020. 10. 16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0/10/15/4620IGX4TFHC7HZ5SYGVDHPQA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요약) 한전, 한수원 등 공기업 7곳, 2030년까지 신재생에 35조 쏟아붓는다 - 내년부터 신재생발전소 신규건설과 이에 따른 전력망 구축 등에 투입예정 - 신재생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력망에 연결하기 위한 설비 건설에 내년부터 27년까지 8조 투입	
<p>내년부터 2030년까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 7곳이 신재생에너지에 쏟아부을 돈이 총 3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p> <p>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14일 한전과 한전의 자회사인 한수원발전 5사 등 공기업 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신재생발전소 신규 건설과 이에 따른 전력망 구축 등에 총 34조 9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p> <p>한수원 등 6사는 내년부터 총 26조 6690억원을 투입해 태양광·풍력·바이오·연료전지 등 신재생발전 설비용량 3만 5228MW(메가와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수원이 7조 400억원, 남동발전 3조 9200억원, 중부발전 2조 9300억원, 서부발전 1조 9300억원, 남부발전 6조 2400억원, 동서발전 4조 5700억원 등이다.</p> <p>신재생발전소를 위한 전력망 건설에도 거액이 투입된다. 한전은 신재생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력망에 연결하기 위한 변압기·변전소·송전선로 건설에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 8조 283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발전 공기업들의 무리한 신재생 투자는 재정 부실을 가중시킬 전망이다.</p> <p>한전의 중장기 재무 전망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발전 5사의 부채와 부채비율(연결 기준)은 2019년 128조 7000억원(186.8%)에서 2024년에는 159조 4000억원(234.2%)으로 늘어나게 된다.</p> <p>권 의원은 “대규모 신재생 투자는 한전의 재정난을 악화시켜 결국 국민 전기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p>	

2020. 10. 16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0/1054466/	
(요약) 정부, 에너지전환 시동 걸었지만... 한전 “코로나로 속도 늦춰질 것” - 확실한 경제성 우위를 가지지 못한 태양광·풍력 등 분산전원은 코로나 재정투입 우선순위 변경으로 어려움 - 국경봉쇄 정책의 장기화로 분산전원 제조업체가 도산하면서 공급망 붕괴 가능성	
<p>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19 산업 대책으로 ‘그린뉴딜’에 사활을 건 가운데 에너지 전담 기관인 한국전력공사 내부에서는 오히려 “글로벌 에너지 전환 산업 흐름이 더뎠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정책 드라이브라는 정부 시각과 반대되는 예측이다.</p> <p>14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전에서 받은 ‘코로나 19 현황과 경제 및 에너지산업 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내부 에너지 산업 전망을 통해 “에너지 전환 트렌드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p> <p>한전 측은 “확실한 경제성 우위를 가지지 못한 태양광·풍력 등 분산전원은 코로나 19로 재정 투입 우선순위가 변경되면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코로나 19로 다른 실물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친환경보다는 우선적으로 민생과 직결된 영역부터 각국의 재정 투입 무게중심이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전은 2022년까지 태양광 신규 건설 설비 규모를 기존 예상보다 최대 24%까지 낮추고 있다는 글로벌 전문기관들 전망을 사례로 들었다.</p> <p>보고서는 코로나 19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조 생태계가 위축될 우려가 높다고 봤다. 한전 측은 “국가별로 시행하고 있는 국경 봉쇄 정책이 장기화하면 분산전원 제조업체가 도산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으로 중국 태양광 제조업체의 2020년 수출은 최대 57%까지 감소할 것으로 봤다.</p> <p>또 신재생에너지 가격 경쟁력도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수요 감소가 장기화하면 수요와 연결된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들이 약화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현재 섰다운 등으로 생겨난 전력 사용량 감소가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p> <p>다만 한전은 “부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만약 전 세계적으로 재정 정책을 신재생에너지에 집중하게 되면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p>	